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2교시)

※ 본 논술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광운대학교에 있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시간은 2시간(120분)입니다.
- 답안지 상의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및 마킹(진하게)바랍니다.
- 답안 작성란은 "검정색볼펜" 또는 "검정색 연필(샤프)"로 작성하십시오.
 ※ 검정색 이외(빨간색, 파란색 등) 사용 금지
 ※ 지우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문제 1] (가)의 ㉠을 바탕으로 (나)의 ㉡과 (다)의 ㉢을 설명하고, (라)의 ㉣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주장에 대해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매우 단순하게 말하자면, 상이한 두 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 특성은 뿌리의 차이에 있다. 소나무는 바람과 정면에서 부딪치면서 살아야 하므로 땅속 깊게 그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소나무의 근본적인 특성은 ‘심근성(深根性)’을 지닌다는 데 있다. 이에 반해 버드나무는 뿌리가 얇고 잔뿌리만 무성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는데, 이것이 버드나무가 ‘천근성(淺根性)’에 속하는 이유이다. 소나무는 한곳에 뿌리를 박으면 여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아 뿌리돌리기를 하지 않으면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버드나무는 뿌리가 없어도 가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심근성의 문화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이고, 천근성의 문화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문화다. 소나무 가지는 한번 꺾이고 부러지면 재생 불가능이지만 버들은 아무 데서나 새 가지가 돋는다. 이렇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깎깎한 소나무 문화와는 달리 버드나무는 뿌리가 얇으므로 오히려 덕을 본다. 이처럼 ㉠ 심근성의 문화와 천근성의 문화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나)

우리는 당시 농장과 집 안팎에서 ㉡ 기쿠유어(語)를 사용했다. 장작더미 주위에 앉아 옛날이야기를 주고받던 방들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옛날이야기를 해 주던 사람들은 주로 어른들이었지만 아이들을 포함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그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다음 날 유럽인 주인들이나 흑인 주인들의 농장에서 차와 커피콩을 따느라 그 자리에 없었던 아이들을 위해 그 이야기를 다시 해 주었다. 아이들은 주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왜 그들이 협력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상황에 따라 한 단어가 갖는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를 안다. 언어란 그저 말의 배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즉자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초월한 어떤 함축적인 힘을 가졌음도 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한 언어가 지닌 마술적인 함축미를 감상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그 아이들은 때때로 말의 의미보다 음악성이 더 우위에 있는 이유도 이해한다. 언어란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세계를 투사하는 그 무엇임이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족미를 갖추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경험, 생각, 감정, 사상들이 환경과 맞게 결합된 것이 언어임을 배웠다. 따라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집과 농장은 예비 학교인 셈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 그것도 식민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이 조화는 여지없이 깨진다.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언어가 그들이 자란 문화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1952년 케냐에 계엄령이 공포된 이후로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던 학교는 식민주의자들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그 이후로 영어가 공식적인 교육어가 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환경과 전혀 다른 언어인 영어가 매우 구체적이고 고유한 언어적 차원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제 기타 모든 다른 언어가 영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해야 하는데, 이것은 식민주의의 가장 큰 폭력이다.

<다음 장 계속>

(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쪽 모퉁이 땅에 편협한 기질을 타고나, 밭은 중국 대륙의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눈은 중국의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국경 안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은 다리가 길고 까마귀는 검은 것이 각자 천성을 지키는 것이고, 우물 안 개구리나 밭의 두더지는 오직 자기 땅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예(禮)는 차라리 소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한 것이라 인식했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있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구차해졌다. 이는 다른 게 아니다.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 생긴 잘못이다.

장차 배우고 물어야 한다면 중국을 버려두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자는 오랑캐들이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해 중국의 옛 법마저 싸잡아 천하고 야만적이라 여긴다. 저들이 진실로 변발을 하고 옷깃을 왼편으로 여미는 오랑캐이지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삼대(三代) 이래 한(漢)·당(唐)·송(宋)·명(明)의 대륙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삼대 이래 한·당·송·명의 후손이 어찌 아니겠는가? ㉔ **한자(漢字)**를 받아들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잊었는가? 소통이 가능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며 문화적 발전도 이루지 않았던가? 만약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답다면 진실로 오랑캐라도 나아가 본받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그 규모의 광대함과 마음 씀씀이의 정교함과 *제작(制作)의 심원함과 문장의 찬란함이 삼대 이래 한·당·송·명의 옛 법을 보존하고 있음에랴?

우리를 저들과 비교한다면 진실로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뽐내면서 “지금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와 노린내가 난다고 헐뜯고, 그 백성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며,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싸잡아 배척해 버린다. 그렇다면 어디를 본받아 나아가야겠는가?

*삼대(三代) : 고대 중국의 세 왕조. 하(夏), 은(殷), 주(周)를 이른다.

*제작(制作) : 규정이나 법식 따위를 생각하여 정함.

(라)

문화에서 시원(始原)은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가진 문화나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의 고유성, 중국의 고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시원과 관계없이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포도주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흠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불과 2천여 년 전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관리, 유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프랑스 포도주의 고유성은 지켜질 수 있다. 즉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을 때,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포도주는 오히려 전자가 아닌 후자의 정체성의 상징이 될 것이다.

<다음 장 계속>

이렇게 보면 전통은 전통적이지 않다. 지극히 현대적이다. 역사로서의 전통의 의미와 관련하여 영국의 문화 이론가 윌리엄스는 ㉔ ‘**선별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거의 수많은 문화 중에서 후세대가 선택한 것들만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에 전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 가운데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별되어 지속된 것이고, 반대로 외래 문화 역시 일방적으로 배척되거나 수용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필요에 따라 수용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보존과 수용, 배척이 오랜 시간 쌓여 현재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장한다고 문화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문화는 특정 사회의 일부 모습이 아닌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모든 사회 구성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민족의 생활 관습, 사고방식, 생산 양식, 인간관계, 신앙생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 2] (가)의 ㉔을 (나)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라)의 [사례]에 대하여 ㉓과 ㉔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직업은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의 장이며, 사회적으로는 사회참여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본래 직업의 의미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력의 획득에서 시작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동양에서 한자어 ‘직업(職業)’의 ‘직(職)’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의미하고, ‘업(業)’은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을 뜻한다. 서양에서 직업을 뜻하는 영어 ‘아큐페이션(occupation)’이나 ‘잡(job)’은 보수와 금전을 획득하는 경제력의 근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직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직업들 사이의 귀천(貴賤)은 없다. 하지만 직업은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용이한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직업의 선택에도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분배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의 분배 기준으로 ‘학력’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학력은 개인의 배경이 아닌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비해 공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나)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사회적 자원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규칙에 따라 경쟁을 하거나 분배 기준을 정하여 나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하지 못한 상태를 사회 불평등이라고 한다.

사회적 자원을 나누는데 적용되는 분배 기준으로는 신분, 필요, 능력, 업적 등이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주로 신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에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㉓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 사회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하여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분리한 개인의 능력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신분제와 마찬가지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더 나아가 능력의 부족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자신의 능력 부족 탓으로 여기며 극심한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상위 계층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어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

다양한 이해 갈등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正義)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를 바라보는 데는 **㉠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누구나 독립된 자아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근대 시민 혁명을 전후로 등장한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며,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나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과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익과 공동선이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가능하다고 본다.

(라)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소수의 상위 계층 사람들이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례]와 같은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사례]

A대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신입생의 60%가 소득 상위 20% 이상의 가정 출신이었다. 이에 A대학교는 2020학년도 정원 내 모집 전형에서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의 입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A대학교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지닌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은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학생들만이 지원할 수 있다.

<끝>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열-2교시 1번]

출제 의도

- 한국의 문화 산업은 오랫동안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지만, 그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고 성공은 멀기만 했다. 그러나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국제영화제에 이어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에서 수상하자, 한국에서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 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일어났다. 어떤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어로 만든 대중 음악과 영화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흥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실제적 사례를 통한 문화 전파와 자국화, 문화 수용과 배척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해안이 돋보이는 이어령의 '심근성(深根性)'의 문화와 '천근성(淺根性)'의 문화, 즉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형 문화인 심근성의 문화와,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해양성 섬 문화인 천근성의 문화를 통해 문화의 특성과 전파, 수용에 대해 생각하고, 이 바탕 위에서 영국의 문화 이론가 윌리엄스의 '선별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이라는 개념, 즉 과거의 수많은 문화 중에서 후세대가 선택한 것들만 전통으로 남게 됐다는 주장을 통해 문화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전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 가운데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별되어 지속된 것이고, 반대로 외래 문화 역시 일방적으로 배척되거나 수용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재의 필요'에 따라 수용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금의 문화 현상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TS나 봉준호가 세계 시장에서 호응을 받은 것도 그들 문화 생산물에 타 문화권에서 수용하기 쉬운 '그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런 특성은 식민주의 이후 타국의 문화 수용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문화에 대한 열린 시선으로 지금의 문화와 문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통합 사회, 독서, 국어 등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개념 설명, 문학 작품, 비평, 에세이, 예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성취기준 1	관련
	[10국01-03]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가) 제시문 (라)

성취기준 2	<p>[12독서01-01]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는다.</p> <p>[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p> <p>[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p>[12독서03-05]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p>	제시문 (나)
성취기준 3	<p>[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p> <p>[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p> <p>[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p> <p>[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p>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p>[10통사07-01]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p> <p>[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p> <p>[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p> <p>[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p>	제시문 (라)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 (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이삼형 외 7명	지학사	2018	89	제시문 (가)	○
독서	이삼형 외 5명	지학사	2019	210-211	제시문 (나)	○
독서	박영목 외 4명	천재교육	2019	165-166	제시문 (다)	○
사회·문화	김영순 외 4명	교학사	2019	94	제시문 (라)	○
통합 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18	222	제시문 (라)	○
국어	이삼형 외 7명	지학사	2018	83	제시문 (라)	○

문항 해설

본 문제의 취지는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고 해석하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논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가)에서는 심근성의 문화와 천근성의 문화로 문화를 구분한 뒤, 이 개념 가운데 하나로 탈식민주의자인 응구기 와 티옹오의 글 (나)에서 '기쿠유어(語)'의 '심근성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고, 박제가의 『북학의』의 서문인 박지원의 글 (다)에 나타난 한자(漢字)의 '천근성의 문화'적 특징을 설명해야 하고, 이후 윌리엄스의 '선별된 전통(selective tradition)'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다)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는 문화의 특징을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양분해 논의하고 있다. (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기쿠유어가 얼마나 그들의 생활과 사고,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다)는 명을 숭상하고 청을 멸시하는 조선에 대해 발달된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는 전통이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라)의 선별적 전통을 제대로 이해해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가)와 (나),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 ① (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 (나)의 기쿠유어의 특성과 연결해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2점**
 - (가)에서 심근성의 문화를 (나)의 기쿠유어와 연결했을 경우 최대 **4점**
 - (가)에서 심근성의 문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하면 최대 **4점**
 - (나)에서 심근성의 문화로서 기쿠유어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하면 최대 **4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심근성의 문화, 소나무, 이념이나 정통, '경험, 생각, 감정, 사상', 환경, 의미와 뉘앙스, 함축적인 힘, 마술성, 자족미
- ② (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 (다)의 한자의 특성과 연결해 적절하게 설명했을 경우
최대 **12점**
 - (가)에서 천근성의 문화를 (다)의 한자와 연결했을 경우 최대 **4점**
 - (가)에서 천근성의 문화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하면 최대 **4점**
 - (나)에서 천근성의 문화로서 한자의 특징을 적절하게 요약하면 최대 **4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천근성의 문화, 버드나무, 이식, 수용·적응, 한자, 소통, 기록, 문화적 발전
- ③ (라)에서 윌리엄스의 '선별적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요약했을 경우 최대 **5점**
 - (라)에서 윌리엄스의 '선별적 전통'의 개념을 잘 정리한 경우 최대 **3점**
 - (라)에서 프랑스 포도주를 예로 인용해 '선별적 전통'의 개념을 부드럽게 보완한 경우
최대 **2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선별적 전통, 과거 문화, 선택, 전통, 프랑스 포도주, 상징, 자국화

- ④ (라)의 '선별적 전통'으로 (나)와 (다)를 제대로 설명했을 경우 최대 **16점**
- (라)의 '선별적 전통'으로 (나)를 볼 때 식민주의자가 강제로 언어를 바꾸려 하더라도 쉽지 않거나 아프리카에 맞는 영어로 발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8점**
 - (라)의 '선별적 전통'으로 (다)를 볼 때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면 수용해 자신의 문화로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8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선별적 전통, 아프리카 고유 언어, 식민주의자, 강제, 영어, 수용(받아들이다), 상황에 맞는, 영어, 오랑캐, 선진 문화, 자국화, 자신의 문화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예시 답안

심근성의 문화와 천근성의 문화는 상반된 개념이다. 소나무처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 전자는 이념이나 정통에 뿌리 박고 있는 문화이고, 버드나무처럼 뿌리는 얕지만 이동이 용이한 후자는 이식과 수용·적응이 잘되는 문화다. 심근성의 문화로는 ㉠의 기쿠유어를 들 수 있다. 기쿠유어는 수천 년을 이어온 경험, 생각, 감정, 사상들이 환경과 맞게 결합된 것인데, 사용자들에게 맞는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를 지니고 있고, 함축적인 힘, 마술성, 자족미도 있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심근성의 문화를 대표한다. 천근성의 문화로는 ㉡의 한자를 들 수 있다. 글자가 없던 한반도는 중국 글자인 한자를 받아들여 소통이 가능하고 기록을 남겼으며 많은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자가 천근성의 문화를 대표한다.

월리엄스가 언급한 '선별된 전통'은 후세대가 선택한 과거 문화만 전통으로 남게 됐다는 주장이다. 가령 프랑스의 것이 아니었지만, 프랑스 사정에 맞게 자국화해 프랑스의 상징이 된 포도주가 이를 대변한다. 이 개념으로 (나)를 보면, 기쿠유어를 식민주의자들이 강제로 영어로 바꾼 상황을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영어로 발전할 것이다. (다)를 보면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전이 더디다고 주장하는데, 조선에 필요한 선진 문화라면 수용해 자신의 문화로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 수용은, 외부에서 강압하든 내부에서 강권하든 강제할 수 없다. (759자)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논술고사 문제 해설

[인문계열-2교시 2번]

출제 의도

- 유한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날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분배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대학 입시와 취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업에 대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다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평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능력주의가 공정한 것인지 또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인 통합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그 분배 기준에서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그 장점과 문제점을 논술하고, 이를 고등학교 윤리 과목인 생활과 윤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연결지어 능력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각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 고시 제 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라)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기준 1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시문 (다)
성취기준 3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나) 제시문 (라)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 (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18	80-81	제시문 (가)	○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36	제시문 (가)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176, 189, 195	제시문 (나)	○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65, 173	제시문 (나)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1815	제시문 (다)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인	지학사	2018	92	제시문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97	제시문 (다)	○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77	제시문 (라)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177	제시문 (라)	○

문항 해설

- (가)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자원의 획득이 용이한,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능력주의에 따라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다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성과로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을 설명한다.
- (나)는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으로서 능력주의와 그 장점을 설명한 후, 개인의 능력은 그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주의 역시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 (다)는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정의(正義)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또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과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본다.
- (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 사례로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을 소개한다.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① (가)의 ㉠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 (나)의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견해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의 입장에서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최대 **15점**

-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직업 선택이 중요해지고, 그 분배 기준으로 학력이 공정하게 여겨짐 (5점)

- 능력주의를 설명하고, 그 입장에서 ㉠현상은 당연한 것임 (5점)

- 능력이란 것은 경제적·사회적 배경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학력이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음 (5점)

- **Key Words: 사회적 자원, 직업의 선택, 학력, 능력주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② (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나)의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을 연결하고, (라)의 사례에 대하여 역차별을 초래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정의로 파악함(5점)

- 능력주의를 긍정함(5점)

-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을 초래하여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임(5점)

- **Key Words: 자유주의적 정의관(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능력주의의 긍정, 적극적 우대 조치, 역차별**

③ (다)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나)의 능력주의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을 연결하고, (라)의 사례에 대하여 사회갈등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정책임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익과 공동선의 실현을 정의로 파악함(5점)

- 능력주의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패배한 사람들은 좌절과 분노를 겪게 되어 사회갈등을 야기함(5점)

-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갈등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책임(5점)

- **Key Words: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익, 공동선, 좌절, 분노, 사회갈등, 적극적 우대 조치, 사회통합**

④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예시 답안

직업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에 용이한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학력이 공정한 분배 기준으로 여겨진다.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학력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를 통해 선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의 현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학력이 공정한 분배 기준이 되기는 어렵고 ㉠의 현상은 오히려 부의 대물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라)의 사례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능력주의를 긍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라)의 사례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정책이다. 반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익과 공동선을 달성하는 것을 정의라고 파악한다. 능력주의에 따른 직업 선택의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부족에 대한 좌절과 상위 계층에 대한 분노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라)의 사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740글자)